

##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대인관계와 문화적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한 성 열                      이 중 한                      금 명 자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채 정 민<sup>†</sup>                      이 영 이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본 연구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상호 간의 문화와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여 좀 더 원활한 대인관계 능력을 획득하고, 상대방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구성된 집단상담프로그램의 구성과 그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연구들에서 실제 검증되지 못한 프로그램들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양측 주민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의존적 협동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인관계 능력을 획득하고, 상대방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각 회기는 1.5시간씩이고, 총 4회기로 1주일 간격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사전-사후 조사에 의해 검증되었고, 통제군도 설정되어 있는데, 통제군에 비해 본 프로그램 참가군이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단, 북한이탈주민 중 5명이 중도에 이탈하여 프로그램 효과 중 남한 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감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주요어 : 문화, 심리적 적응, 북한이탈주민, 집단상담, 통일

---

\* 본 연구는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기초분야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을 밝힙니다.

<sup>†</sup> 교신저자 : 채정민,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E-mail : minspin@unitel.co.kr

한민족의 통일은 언제 될 지 누구도 모른다. 하지만, 10여 년 전보다는 그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는 점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만큼 남북한 교류가 많이 이루어져왔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금강산 관광 사업, 개성공단 사업, 남북 문화교류 사업,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사업 등이 일반 국민들을 놀라게 할 만큼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각 분야의 변화된 것을 접하고 보이는 반응은 대체로 ‘벌써?’, ‘어~어?’라는 외마디 탄성이다. 말하자면, 이는 특정한 현상을 보고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른 상태를 지각하는 ‘어~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상황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생각에서도 이 현상이 드러난다. 북한이탈주민의 누적 입국자수가 2006년 말 현재 9,625명에 이른다. 남한주민들이 이러한 수치를 들으면, ‘벌써 그렇게 많이?’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는 ‘조용한 통일’의 진행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용한 통일은 제도적 통일의 형식은 아니지만 ‘실질적 통일’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조용한 통일이 지속되다 보면, 머지않아 우리 한민족 모두에게 ‘생활의 통일’을 거쳐 ‘제도적 통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기존에 제도적 통일을 우선시하던 관점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의미하고, 현재의 통일 여건에 따른 적절한 선택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의 통일로 나아가는데 적지 않은 우려 요인이 존재한다. 첫째, 현재 남한주민들 중에는 ‘통일을 꼭 해야 하나?’하

는 생각을 지닌 사람들도 적지 않다. 남한주민들을 상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04년도 12월 여론 조사 결과에서 남북한의 ‘통일’이 아닌 ‘공존(36.4%)’을 선택한 남한주민의 비율이 적지 않았다. 후자를 선택한 사람들은 만일 통일이 된다면 북한주민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이와 같은 부정적인 느낌은 북한주민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와 편견을 가지고 차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남한주민 대부분이 북한 출신자에 대해 좋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인진(1999)에 따르면, 남한주민의 상당수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얼마나 모질면 북에 처자식, 부모형제를 두고 혼자만 잘 살겠다고 오겠나?”, “한번 배반한 사람은 자꾸 배반하므로 믿지 마라.”, “노력은 안하고 요구만 한다.”와 같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남한 중고생이 가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성미영(2002)의 연구에 의하면, 경계 대상(14.2%), 적대 대상(5.0%), 경쟁 대상(1.9%)으로 약 20% 정도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좋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인내심이 강하다’가 64.9%(이하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전체 조사대상자를 100%로 기준하여 표시한 것임), ‘용기가 있다’가 68.5% 등으로 나왔지만, 반면에 ‘기회주의적’이라는 것이 53.3%, ‘배반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48.4% 등으로 나왔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청소년들이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볼 때, 남한주민의 청소년층부터 성인층에 이르기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그리 좋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통일의 선례 국가인 독일 등에서 사회통합의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통일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김용민, 정상돈, 원준호(2004)는 독일 내 사회통합의 곤란 요인으로서 통일독일 체제에 대한 구 동독출신자의 부적응, 동서독 지역 주민간의 상호불신과 갈등, 양측 주민들의 독일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위기와 정치, 사회, 문화적 혼란을 꼽았다. 특히, 두 번째 요인은 상대 지역 주민들을 자신들과 다른 사람으로 범주화하여 동독 출신자에 대해서는 ‘게으름’과 ‘무능함’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한 ‘동쪽 것들(Ossi)’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서독 출신자에 대해서는 ‘거만함’, ‘신뢰성 부족’,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서쪽 것들(Wessi)’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속성 차이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상의 우려 요인들은 개별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만약 후자의 경우처럼 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통일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일 등의 통일 선례 국가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상황에 적합한 대인관계와 문화통합 향상 프로그램을 수립하며, 구체적으로 현실 생활 속에 적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독일 사회의 통합 문제, 그 문제와 해결 프로그램은 무엇이었나?

독일 통일은 서독 측에서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통일정책을 통해 준비되었다(김문환, 2002). 이에 따라 197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동서독은 서로를 인정하기 시작했다(콜베, 2002). 그리고 1972년에 동서독간 기본조약을 맺고 이를 발효시켰다. 이 조치로 양측 주민간의 접촉과 변화의 핵심이었던 동서독 간 라디오와 TV 상호 시청이 허용되었고, 인적 왕래와 화물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이는 국가차원이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상호 간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실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양측 주민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리 좋은 결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김해순(2002)은 통일 이전의 이산가족 상봉이 상호간 가치관 차이의 경험과 포용력 부재로 서로 멀리하는 경향이 나타났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라스(1998)는 독일 통일에 대해 오랫동안 비판하여 왔지만 통일된 지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암울한 시점에 있다’는 식으로 매우 혹평을 했다(그라스, 2002에서 재인용). 이해영(2000)도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는 책을 통해 사회통합이 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많은 사례들이 존재한다. 김해순(2002)이 통일 후 독일에서 동서독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많은 동서독인이 서로 간에 잘 알지 못하고 현실과 빗나간 상대방의 그림을 미리 그리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어떤 동독인은 서독인보다 서독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더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서독의 사정을 깊게 알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텔레비전에 비치는 서독 세계는 많은 점이 허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세계에 맞춰서 그들은 상대방을 기대하다가 통일을 맞았던 것이다. 갈등의 원인은 한 번 굳힌 상대방에 대한 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 데 있다(김해순, 2002, 126쪽).

이렇듯 사회통합이 잘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이 제시되었다. 첫째, 양측 주민들이 접촉을 기피한다는 점이다.<sup>1)</sup> 서로 만나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없고, 호감을 형성할 수도 없다. 이것은 사회통합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둘째, 동서독 출신자 간의 상호불신과 갈등이다(김용민 등, 2004). 여기서 나아가 양측 주민들 간의 적대감과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다.<sup>2)</sup> 이

러한 것들의 대다수는 통일 이전부터 양측 주민들이 가진 편견, 고정관념 등이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통일 이후에도 몇몇 접촉을 통해 그 결과로서 형성된 것일 수도 있다. 셋째, 양측 주민들의 갈등 해결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sup>3)</sup> 넷째, 독일국민들의 정체성 위기와 정치, 사회, 문화적 혼란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체제붕괴를 경험한 동독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서독지역 주민들도 통일 이전보다 낮은 자긍심을 보였다. 정체성 위기는 정치, 사회, 문화의 혼란현상으로 나타난다(김용민 등, 2004). 다섯째, 자신의 문화를 고수하려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sup>4)</sup> 여섯째, 동독출신자들이 통일독일의 체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김용민 등, 2004). 불행하게도 이러한 것들이 작용하여 통일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서독인의 상호간 인식 차이는 더욱 확대되어 가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sup>5)</sup>. 마지막으로, 동서독 간의 경제적 차이

1) 000씨는 옛 친구관계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사귀려고 하지 않은 폐쇄적인 면을 보인다. 새로 이사 온 사람들에게 별 호기심을 보이지 않고 이웃과 정을 나누려고 하지 않은 점은 그들이 서독인이어서 그런지도 모른다. 타인에 대해 수동적이고 비개방적인 면을 동독인에게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데, 예로서 그들은 어디서나 동독인끼리 어울리는 현상을 들 수 있다(김해순, 2002, 62쪽).

2) 통일된 사회에서 동서독인의 화합, 즉 내적인 진정한 화합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적대감과 선입견을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화를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동서독인이 서로 가까워지기 어렵다. 이 담화의 윤리를 통하여 정치와 사회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갈등을 해소 내지는 약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이 차원에서 동서독인의 심리적 화합도 이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것이 동서독인에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역사의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다(김해순, 2002, 189쪽).

3) 일반적으로 동독인에게서는 토론문화가 활성화되지 않고, 폐쇄적인 인간관계를 보이고 있다. 서독인의 갈등해결 방법은 동독인에 비해 일반적으로 투명하다. 그러나 동서독동료는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대화도 피하고 개인적으로 사귀지를 않는다고 한다. 000씨는(서독)동료들은 대화를 하다가도 동독동료가 오면 이야기를 끝내버린다고 했다(김해순, 2002, 156쪽).

4) 서로 사회화 과정에서 익힌 문화적인 관습을 위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가는데, 동서독인은 이 전통을 통해서 익힌 정신과 삶의 양식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하는 데 갈등이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 자신의 것을 고수하려는 독단적인 면과 서로 상대방의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김해순, 2002, 147쪽).

5) 시간이 지나갈수록 동서독인은 처음 만날 때보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은 서로를

와 물질적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이와 연관된 것으로서 동독출신자들의 실업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가 사회통합을 저해한다(성태규, 2002).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다른 요인은 대부분 사회문화 심리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먼저 학문적 측면에서 보면, 통일 후유증으로서 사회 갈등이 증폭되었는데, 이는 1992년에 주로 나타났고(김창환, 양금희, 윤재홍, 2002),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창환 등(2002)에 따르면, 1993년에 ‘통일 후유증으로서의 심리적 문제’, ‘구 동독에서의 학교갈등 - 사례 연구’ 등이 연구되었고, 1994년부터 ‘동서독 심리적 통합’, ‘심리적 통합 - 어떻게 가능한가?’, ‘심리적 통합과정’, ‘심리적 통합을 위한 대화’, 등이 연구되었다. 1996년에는 ‘동서독 학생들의 만남과 대화’라는 실제 학생들 간의 만남 프로그램이 있었다. 1999년부터는 ‘과거 - 현재 - 미래의 심리적 통합’이라는 연수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다음으로는, 통일 이후 독일 정부는 시민대학, 스포츠 동호회, 세미나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이주민들과 현지주민 간에 친밀한 교제와 접촉을 늘리려고 노력하였다(윤인진,

1999). 이러한 노력을 한 주된 이유는, 동독인들이 과거에 정당정책을 주입시키기 위한 정치교육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비정치교육적인 프로그램이 더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었다(김해순, 2002). 구체적으로는 건강, 컴퓨터, 영어 교육 등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동서독인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통일 후에 여러 기관에서 시도했던 교육방법이 있다. 동서독인이 모여서 자신의 역사를 쓰고 서로 돌려가며 읽는 것이었고, 때로는 서로의 과거를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상대방의 역사를 배우는 작업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 결과 토론내용이 자신에 의해 만들어지고 주관적이어서 참여의식이 높았다고 한다(김해순, 2002, 203쪽).

김해순(2002)은 이러한 방식과 함께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예술과 문화행사를 겸하되, 이때 동서독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 대한 소개도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동독주민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 등장한다(김해순, 2002).

다음으로는 독일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다. 독일 통일 이후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실시한 자조집단 연구(Mattausch, 1996)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의 긍정적인 사회관계망이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감을 형성하고, 자기개념의 안정화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안전하고 긍정적인 집단상담의 경

---

비방하는 표현에서도 나타난다. 동독인이 서독인을 “거만하고”, “마치도 승리자처럼 생각하고 있고”, “생색을 내는” 사람 등의 형용사를 붙여서 서독사람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 서독사람은 동독인을 “게으른 민족”, “시중만 받고 싶어 하고”, “대단히 게으르고 공격적”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런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편이고, 서로 다른 점이 같이 사는 생활 속에서 갈등의 원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김해순, 2002, 144쪽).

힘은 새롭고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신뢰로운 집단의 형성을 위해서는 집단 비밀 유지와 적극적이고 수용적이고 진실한 집단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독일의 노력은 ‘부분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예, 김용민 등, 2004) 양측 주민들이 통일된 지 14년여를 지난 상황에서도 사회적 분열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공 부문과 실패 부문의 원인은 무엇일까? 성공의 부문은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을 통한 변화’를 통일 전부터 시행했고, 이러한 것을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었다는데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다양한 자조집단(Matrasch, 1996)을 구성하도록 유도하여 지원하였다는데 있다. 실패 부문의 요인으로서는, 아직도 통일의 전반적인 주도권을 서독 주민들이 가지고 있고, 동독 출신자들을 서독 주도의 통일 국가 체제에 순응시키려는 동화정책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도 문화적 적응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서 적합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것은 캐나다의 경우(Arends-Toth & van de Vijver, 2002)가 잘 보여준다. 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주류(majority) 집단과 편입(minority) 집단 모두가 상호작용하여 문화적응한다는 관점이 제시되기도 했다(예, Bourhis, Moise, Perreault, & Senecal, 1997; Montreuil & Bourhis, 2001). 따라서 이러한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적응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문제는 없는가?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적응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래서 국민의 적응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가를 질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3년에는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원 업무가 비효율적이라는 점이 거론되기도 했다(대한민국정부, 2003).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특징과 문제에 대한 연구(예, 독고순, 2001; 정진경, 2002 등), 이들의 적응 문제에 대한 연구(예, 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진섭, 2005; 채정민, 2003 등) 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들의 적응은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남한 정부가 이들에 대해 적응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이라고 비판한 연구가 있다. 이장호, 김용범, 김경웅(1997)은 기존에 있었던 민족통일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 사회 적응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가 ‘북한이탈주민들이 통일한국의 이념 및 가치관을 내면화하여 통일문화공동체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교육방법과 내용면의 과감한 변신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독일이 서독중심의 동독 출신자의 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과오와 같은 맥락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문제에 대해 프로그램적 접근을 한 경우는 적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이 선언적이거나 방안 모색의 성격에 머물렀고(예, 김학성, 2000; 이장호 등, 1997; 이정우, 김형수, 1996; 조정아, 임순희, 정진경,

2006) 실제로 이러한 것을 진행한 경우는 많지 않다. 실제로 진행하는 것은 주로 민간단체들이고 60여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다(이에 대한 상세한 실태 자료는 이금순, 김규륜, 김영운, 안혜영, 윤여상(2005)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람).

이러한 구호적이거나 선언적이거나 방안 모색의 성격 연구도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검증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이금순 등(2005)의 평가에 의하면, 기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들은 적실성이 낮고, 그 프로그램들도 적응을 위한 일부분의 문제인 경제 문제 해결과 같은 것에 국한되어 있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인간관계 개선이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나아가서 현재의 사회문화통합과 향후의 사회문화통합을 위해 남한 주민들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통합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면이 충실히 반영된 프로그램과 효과 검증 평가 연구도 없었다.

이러한 양측 주민들의 대인관계 증진과 사회문화통합력 제고는 그동안 다양하게 변모해 왔던 통일 방안에서도 ‘사회통합’과 ‘동질성 확보’라는 용어 등으로 줄기차게 강조되어 왔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적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현재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사는 남한 사회의 통합 문제를 해결하는 단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라도 이에 대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공동 프로그램은 무엇을 담고,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 것인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제고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몇 개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에서 이미 이러한 프로그램이 담아야 할 내용은 거의 다루었다. 예를 들어, 이장호 등(1997)의 연구에서 보면 4가지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양측 주민들에게 자연스런 만남의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을 남한 1 대 1 혹은 1 대 다수로 결연해준다. 셋째, 탈북자들의 모임을 활성화한다. 넷째,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문화심리적 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해준다. 이러한 것은 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설계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장호 등(1997)의 남한 사회 동화 모형과 집단상담 프로그램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출신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동화하고 조절해가는 과정에 관한 5단계의 개념적 모형을 (<사회적응>- 이질사회 충격 취업준비 생활정착 재사회화 사회적 통합: <심리적응>- 혼란기 갈등기 대처기 동화기 정체성 활성화)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이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이다.

첫째, ‘북한출신 주민 심리사회 적응 프로그램’은 반(半)구조화된 집단지도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둘째, ‘북한출신 주민 심리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진행은 자격을 갖춘 집단지도자(심리전문가 또는 훈련된 교육지도자)가 담당한다. 본 프로그램의 내용과 기법은 집단을 운영하는 일반지침으로 사용되며, 집단의 특성과 역동에 따라 창조적으로 그리고 신축성 있게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출신 주민 심리사회 적응 프로그램’은 4개의 기본과정과 1개의 추수과정을 포함한 총 5과정 12마당(36시간)으로 구성된다. 4개의 기본과정은 도입과정, 용해-조정과정, 정리-통합과정, 그리고 적응-종결과정으로 나뉘어진다.

넷째, 본 프로그램은 운영에 있어서, 북한출신 주민들의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 북한출신 주민 상호간의 접촉 회피경향, 자기개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남한 태생인 집단지도자의 선입견적 태도의 분석과 비교문화적 시각의 견지가 강조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만 진행될 경우 위의 첫째와 둘째 내용은 남한 주민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남한 주민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먼저 남한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얼마나 접촉하고 싶은가를 살펴보면, 이종한, 금명자, 채정민, 이영이(2005)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접촉하고 싶어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하지만 남한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접촉해 본 경험이 3.3%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였다(김성윤, 유정갑, 강석윤, 박선아, 2003). 또한, 이 연구에서 남한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접촉한다고 해도 친밀하게 지내는 경우는 전체 접촉 경험자의 19.9%에 불과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도 남한주민들을 1주일에 한 번도 접촉하지 않는 경우가 39%나 된다고 보고하였다(이금순 등, 2004). 이러한 것은 양측 주민들이 모두 접촉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나아가 진정한 대인관계를 갖지도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남한 주민들이 북한 문화에 대해 관

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영(2001)의 연구가 있는데, 남한 주민들도 북한 문화의 한 종류인 북한 영화에 대해 ‘매우 재미있다’가 10.8%, ‘조금 재미있다’가 53.7%로서 전체의 2/3가 수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남한 주민들도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인관계 차원에서나 문화 차원에서 접근을 원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양측 주민들이 접촉하게 하는 방안은 매우 유효하고, 접촉 시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는 양측 주민들이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여 궁극적으로 상호의존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만남은 어떤 성격의 것이어야 하는가, 즉, 교육적 형식이어야 하는가, 상담적 형식이어야 하는가이다. 교육적 형식은 정보제공의 의미가 크다. 그런데 이러한 것만을 강조할 때 그 효과는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미 양측 주민들이 서로에 대해 간접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측 주민들이 서로에 대해 상호의존적 느낌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상담적 형식을 띠다면 상호 인간적 성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 역시 굳이 상담적 측면만을 강조할 경우 상대방과의 접점을 찾는데 상호 이해가 여전히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 요소를 가미하여 교육적 의미를 지닌 집단상담적 형식을 띠는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양측 주민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만나게 해야 하는가? 서울특별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시행한 2002 여름평화캠프라는 남북한 청소년 대상 문화통합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남북출신자 각 20여명씩 모여

3박 4일로 전남 완도일대에서 시행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집합 형태이므로 양측 주민들이 상호의존적으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기는 어렵고 자신과 같은 출신자들과만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 따라서 집단상담에서는 8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을 감안할 때 그 내외이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얼마 동안이나 만나면 좋은가? 이장호 등(1997)의 연구에서는 양측 주민들 간에 자매결연 수준까지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너무 양측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단 1회의 만남으로 그치는 것은 지양하되 너무 장기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양측 주민들이 접촉한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만나는 것이 좋은가? 상호의존성을 이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Aronson과 Gonzalez(1988)의 연구에서 적대적이었던 백인, 라틴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짜맞추기 교실(jigsaw classrooms)에서 성공적인 조건이라고 확인되었다. 물론 이러한 조건은 상호 동등한 입장이라는 점을 전제한 것이다. 따라서 양측 주민들이 우열의 가름없이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간의 의존적 관계에 놓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쉽게 몰입되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흥미요소가 가미되어야 한다. 이것은 게임식 형태일 때 경쟁심을 바탕으로 해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몰입하도록 하게 하여 유도할 수 있다.

이상의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 이해력 제고를 통해 상호 통합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단기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여기서 프로그램의 총 기간은 1주일 간격으로 각 회기별로 1.5시간씩 총 4회로 하였다. 여기서 프로그램을 4회로 제한하였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집단상담이 10회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짧은데 양측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모일 수 있는 조건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해서이고, 앞서 이장호 등(1997)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도를 설정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한 집단의 참가 규모도 너무 클 경우 구성원들의 책임감이 약화되어 결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4명으로 제한하였고, 양측 주민들의 수를 동수로 하여 양측 주민들이 다수와 소수에 의한 권력의 차이를 느끼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가진 심리적 특성과 행태의 특징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제 1회기부터 자신의 별칭을 짓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 지었을까를 생각해보고 맞춰보고, 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해 볼 수 있는 퀴즈식 성격 파악 게임을 하게 했다. 이 때 사용된 퀴즈의 예로는, ‘상대방은 과일을 먹을 때 큰 것부터 먹을까, 작은 것부터 먹을까?’이다. 이러한 퀴즈는 또한 의외의 답을 이끌어내 재미있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개인들 간의 활동을 통해 상호간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높아진 후에 제 2회기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였다. 여기서 문화는 이데올로기화된 것이 아닌 생활화된 것으로서 실제적인 문화 학

습이 되도록 하였다. 그래서 Collet(1993)이 쓴 ‘습관을 알면 문화가 보인다’라는 비교문화적 주제를 담은 책의 틀을 적용하였다. Collet이 제시한 주제는 총 28개인데, 이를 모두 단기간에 다룰 수는 없어서 양측 주민들이 상대방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문화에서 이 28개 주제 중에 어떠한 것을 알면 좋을까를 ‘1점(전혀 아니다)’ ~ ‘5점(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여 높은 평균 점수를 얻는 것을 양측 문화의 대표 주제로 5개씩 고르고, 이 10개 중에서 상호 중첩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첩이 적은 경우에는 높은 점수인 것을 5개 골랐다. 이렇게 한 이유는 민주적 의사결정이면서 상대방에게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신감 있고 성실한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었다. 그리고 이 선정된 주제에 대해 상대 문화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퀴즈를 내서 맞춰 보도록 하고, 그 정답은 해당 문화 출신자들이 직접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측 주민들이 상호간에 문화 학습을 위한 ‘교사-학생’의 역할을 교대로 해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각 집단의 구성원들이 가진 관심사를 고스란히 반

영할 수 있고, 매 집단마다 다른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전략이었다.

제 3회기에서는 제 2회기에서 못다 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이해지 학습을 하였다. 이것은 정진경(2000)이 개발한 ‘문화이해지’를 기초로 하되, 집단 문화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이해지적인 측면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단어 퍼즐 게임은 앞서 Aronson 등(1988)이 제시한 ‘짜맞추기 게임’을 응용한 것으로서 전체 구성원들이 단어 퍼즐을 협동하여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때 단어는 가로축 단어들은 남한 문화와 관련된 것이고, 세로축 단어들은 북한 문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식시켜 주고, 나아가 추후에 정답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해당 문화 출신자들이 할 수 있게 해서 ‘자신의 문화는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잘 안다’는 인식과 ‘나도 당신에게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이었다. 이 때 단어 퍼즐 과제는 25분을 할당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정답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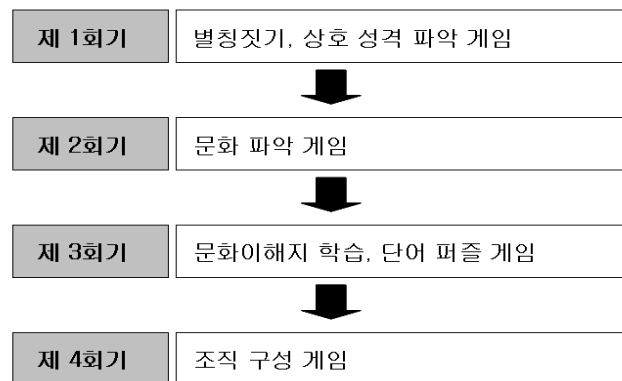


그림 1. 본 프로그램 구성 내용

제 4회기에서는 그 동안의 문화 학습과 상호의존감을 기초로 가상의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신들의 학습 성과를 인식하고, 그동안의 부족한 경험을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 주 과제이었다. 이를 위해 남북한 관련 기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업무를 해 보도록 하였다. 이때 모든 구성원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프로그램에서 마련한 상황은 대형할인마트를 다수 거느린 어느 남한 기업에서 ‘재무팀’, ‘인사팀’, ‘홍보팀’, ‘영업팀’에 각각 1명씩 직원을 채용해야 하고, 출신지별(남한, 북한), 성별(남자, 여자), 학력(고졸, 대졸, 대학원졸), 경력(없음, 1년, 2년, 3년, 4년), 외국어 구사능력(영어, 일어, 중국어), 성격(58개 형용사)별로 선택하여 가상의 인물 특징들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 과정이 종료되면 왜 그러한 인물을 선택했냐고 연구자가 묻고, 연구자가 미리 준비한 5개의 특별한 상황, 예를 들면, ‘남한 출신과 북한 출신 100명의 매장 직원을 선발하여 남한 지역의 할인매장에 배치하시오’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뽑힌 가상의 인물 즉, 인사팀 직원과 영업팀 직원이 그들의 특징으로 이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지 아닌지와 그 이유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측 주민들이 협동하고, 남북한 공동 작업 상황에 대한 대처의식도 가지도록 하였다.

이상의 프로그램을 다시 개괄해 보면, 초기에는 상대방과 상대 문화에 대한 인식과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게임식으로 간접적으로 적용해 보며, 마지막으로는 조직구성과 같은 문제에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전 과정은 사전-사후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분명히 하도

록 하였고,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통제집단을 동수로 구성하여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하여 그 변화를 비교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방 주민에 대한 인식과 감정의 변화, 문화이질감의 극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통제집단보다 실험집단에서 상대방에 대한 거리감과 신뢰감과 같은 대인관계적 요소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허구적 동질감과 같은 문화동질적 측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 방 법

### 연구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4년 이내 정착자들을 스노우볼(snowball) 방식을 적용하여 표집하였다. 남한 주민들은 특별한 조건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표집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북한이탈주민은 총 43명이었고(5명 중도 이탈자 제외, 남자 16명, 여자 27명), 평균 연령은 33세 6개월(S.D. 11세 1개월)이었으며, 평균 정착 기간은 2년 9개월(S.D. 1년 7개월)이었다. 남한 주민은 총 48명(남자 20명, 여자 28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31세 4개월(S.D. 10세 7개월)이었다. 이들을 각각 실험집단 즉,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포함된 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해서 할당하였는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20명(4명 중도 이탈자 제외) 대 23명(1명 중도 이탈자 제외)으로, 남한 주민은 24명씩 동수로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집단상담이 가능한 서울 소재 모대학교 연구

소에서 진행하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과 통제집단 구성원들에게는 왕복 여비와 약간의 금전적 사례를 하여 집단을 유지하였다. 이렇게 한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동기가 다소 부족하였기 때문에, 즉,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의 본 목적이 노출될 경우 연구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자들이 판단하여 이들 연구대상자 모두에게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라고만 말해주었다.

#### 측정 도구

##### 사회적 거리감 척도

전우영과 조은경(2000)이 심진섭(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기초로 11개 문항으로 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여기에 포함된 문항은, ‘옆집에 와서 살면 인사 정도는 하겠다.’와 같은 것이었다. 이 척도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큼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1이었다.

##### 상대 신뢰감 척도

Rempel과 Holmes, Zannas(1985)가 제작한 18 문항의 수정판을 이은정(2001)이 변안한 것을 10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예, 안심하고 일 자리를 추천하겠다, 자신의 일을 잘 알아서 할 것이라고 믿는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다, 돈을 믿고 빌려줄 수 있다, 나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 성미를 참지 못할까봐 가끔 불안하다, 매우 일관되게 행동할 것이라고 믿는다,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 낯선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안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파트너에 대한 응답자의 확신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파트너에게서 기대되는 책임감과 보살핌의 정도에 대한 응답자의 확신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신뢰감이 큼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75이었다.

##### 허구적 유사성 척도

조금호(2005)가 응답자가 자기와 친구들이 ‘의견’, ‘기호’, ‘취미’, ‘가치관’이 비슷한 정도를 0%(전혀 비슷하지 않다)부터 100%(완전히 비슷하다)로 평가하게 한 것을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들에게 적합한 내용을 수정하여 14개의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즉, ‘서울 주변 신도시 개발’, ‘자녀 입양’, ‘인간복제 허용 여부’, ‘한반도 통일 후 수도 결정’, ‘자녀 양육’, ‘지역감정’, ‘한국 문화’, ‘미국인’, ‘일본인’, ‘현 정부의 대북 정책’, ‘현 정부의 경제 정책’, ‘현 정부의 교육 정책’, ‘북한 남자’, ‘북한 여자’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6이었다.

## 결 과

### 프로그램 집단과 통제집단 간 종속측정치

본 프로그램에서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출신 변인과 프로그램 참가자와 비 참가자의 프로그램 참가 변인을 중심으로 그 효과를 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표 1과 같이 사

표 1. 출신과 프로그램 참가 여부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

|      | 출신 구분  | 사회적 거리감   |           | 상대 신뢰감    |           | 허구적 동질감      |              |
|------|--------|-----------|-----------|-----------|-----------|--------------|--------------|
|      |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 실험집단 | 남한 주민  | 3.59(.49) | 3.18(.51) | 3.02(.52) | 3.28(.52) | 34.48(18.13) | 40.55(18.61) |
|      | 북한이탈주민 | 3.94(.57) | 3.72(.54) | 3.19(.55) | 3.36(.53) | 61.75(20.83) | 63.80(21.25) |
| 통제집단 | 남한 주민  | 3.58(.52) | 3.65(.47) | 3.01(.51) | 3.10(.50) | 33.93(18.09) | 34.05(17.71) |
|      | 북한이탈주민 | 3.97(.61) | 4.06(.46) | 3.16(.53) | 3.31(.51) | 63.70(20.04) | 64.71(20.47) |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출신 변인과 프로그램 참가자와 비 참가자의 프로그램 참가 변인을 중심으로 2원 변량분석을 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거리감( $F(1,87)=12.95, p<.001$ ), 상대 신뢰감( $F(1,87)=26.54, p<.001$ ), 허구적 동질감

( $F(1,87)=26.61, p<.001$ )에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 $F(1,87)=20.24, p<.001$ ), 상대 신뢰감( $F(1,87)=34.26, p<.001$ ), 그리고 허구적 동질감( $F(1,87)=12.64, p<.001$ )에서는 출신 변인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거리감( $F(1,87)=167.44, p<.001$ )과 허구적 동질감( $F(1,87)=26.61, p<.001$ )에서는 프로그램 참가 여부 변인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표 2. 출신과 프로그램 참가 여부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 변수의 2원 변량분석

|            |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
| 사회적<br>거리감 | 출신(A)        |     | .34    | 1   | .34    | 20.24***  |
|            | 프로그램 참가여부(B) |     | 2.84   | 1   | 2.84   | 167.44*** |
|            | A X B        |     | .22    | 1   | .22    | 12.95***  |
|            | 오차           |     | 1.48   | 87  | .01    |           |
| 상대<br>신뢰감  | 출신(A)        |     | .16    | 1   | .16    | 34.26***  |
|            | 프로그램 참가여부(B) |     | .00    | 1   | .00    | .86       |
|            | A X B        |     | .13    | 1   | .13    | 26.54***  |
|            | 오차           |     | .42    | 87  | .00    |           |
| 허구적<br>동질감 | 출신(A)        |     | 105.78 | 1   | 105.78 | 12.64***  |
|            | 프로그램 참가여부(B) |     | 222.67 | 1   | 222.67 | 26.61***  |
|            | A X B        |     | 152.68 | 1   | 152.68 | 18.25***  |
|            | 오차           |     | 727.84 | 87  | 8.36   |           |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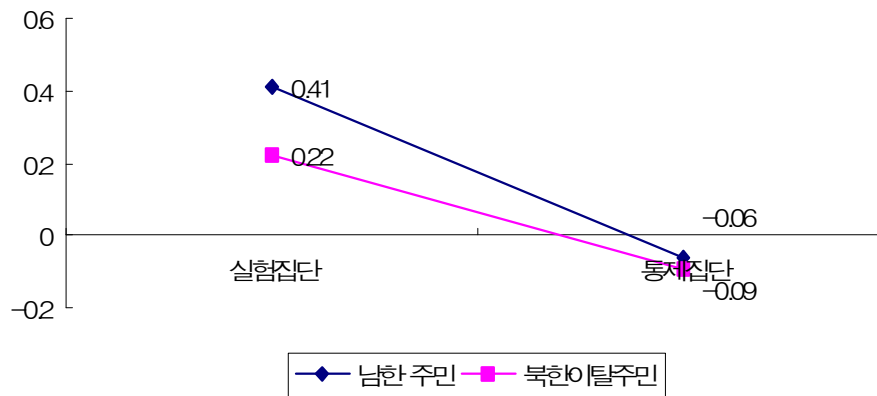


그림 1. 출신과 프로그램 참가 여부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변화

따라서 이들 각각에 대해 단순 주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남한 주민이 가진 사회적 거리감은 실험집단( $M=.41$ ,  $SD=.44$ )이 통제집단( $M=-.06$ ,  $SD=.33$ )보다 더 유의미하게 많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t=24.45$ ,  $p<.001$ ). 북한이탈주민이 가진 사회적 거리감은 실험집단( $M=.22$ ,  $SD=.51$ )이 통제집단( $M=-.09$ ,  $SD=.57$ )보다 더 유의미하게 많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t=4.72$ ,  $p<.001$ ). 그리고 실험집단의 경우에도 남한주민( $M=.41$ ,  $SD=.44$ )이 북한이탈주민( $M=.22$ ,  $SD=.51$ )보다 더 긍정적으로 유의미

하게 변화하였다( $t=2.76$ ,  $p<.01$ ). 이러한 결과를 그림으로 도시한 것이 그림 1이다.

다음은, 남한 주민이 가진 상대 신뢰감은 실험집단( $M=.25$ ,  $SD=.53$ )이 통제집단( $M=.08$ ,  $SD=.70$ )보다 더 유의미하게 많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t=11.32$ ,  $p<.001$ ). 북한이탈주민이 가진 상대 신뢰감은 실험집단( $M=.18$ ,  $SD=.91$ )과 통제집단( $M=.15$ ,  $SD=.90$ )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38$ ,  $p=.70$ ). 하지만, 실험집단의 경우, 남한주민( $M=.25$ ,  $SD=.53$ )과 북한이탈주민( $M=.18$ ,  $SD=.91$ )은 유의미한 차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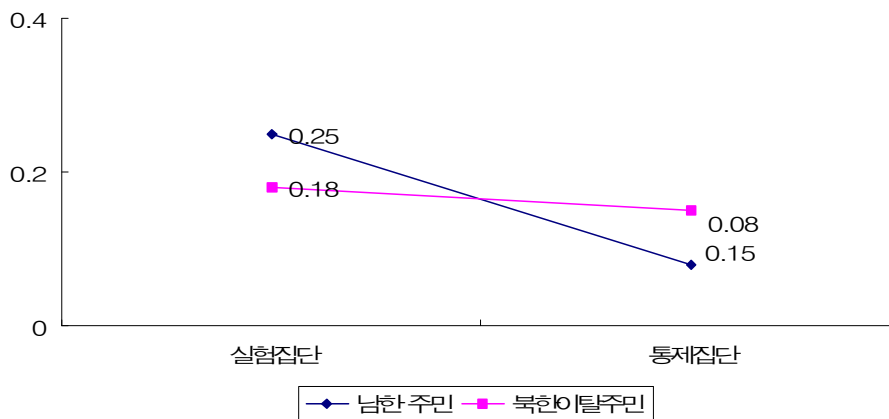


그림 2. 출신과 프로그램 참가 여부에 따른 상대 신뢰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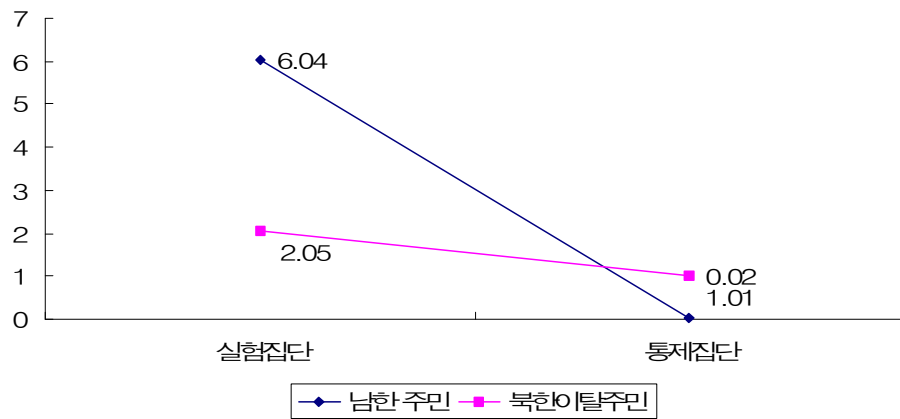


그림 3. 출신과 프로그램 참가 여부에 따른 허구적 동질감 변화

보이지 않았다( $t=.73$ ,  $p=.46$ ). 이러한 결과를 그림으로 도시한 것이 그림 2이다.

마지막으로, 남한 주민이 가진 허구적 동질감은 실험집단( $M=6.04$ ,  $SD=18.53$ )이 통제집단( $M=.02$ ,  $SD=17.51$ )보다 더 유의미하게 많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t=5.21$ ,  $p<.001$ ). 북한 이탈주민이 가진 허구적 동질감은 실험집단( $M=2.05$ ,  $SD=31.27$ )과 통제집단( $M=1.01$ ,  $SD=.21.87$ )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1.46$ ,  $p=.15$ ). 또한, 실험집단의 경우, 남한

표 3. 집단별 사회적 거리감, 상대신뢰감, 허구적 동질감(차이 점수 기준)

|         | 구성원 완전 유지 집단<br>(N=28, 7개 집단) |                  | 구성원 이탈 집단<br>(N=15, 5개 집단) |                 | <i>t</i> |
|---------|-------------------------------|------------------|----------------------------|-----------------|----------|
|         | 남한 주민<br>(N=14)               | 북한이탈주민<br>(N=14) | 남한 주민<br>(N=12)            | 북한이탈주민<br>(N=3) |          |
| 사회적 거리감 | -44(.39)                      | -23(.59)         | -32(.33)                   | -20(.55)        | .81      |
| 전체      | -33(.42)                      |                  | -29(.30)                   |                 |          |
| 상대 신뢰감  | .31(.43)                      | .17(.88)         | .14(.50)                   | .18(.89)        | 3.11**   |
| 전체      | .24(.62)                      |                  | .15(.76)                   |                 |          |
| 허구적 동질감 | 6.84(17.32)                   | 2.04(30.01)      | 5.02(15.21)                | 2.08(19.50)     | -1.23    |
| 전체      | 3.44(23.28)                   |                  | 3.97(17.31)                |                 |          |

\*  $p < .05$ , \*\*  $p < .01$ (괄호 안은 표준편차)

사후 점수에서 사전 점수를 뺀 차이 점수 기준임.

사회적 거리감과 상대 신뢰감은 1~5점으로, 허구적 동질감은 0%~100%로 평정한 점수에 기초함.

주민( $M=6.04$ ,  $SD=18.53$ )이 북한이탈주민( $M=2.05$ ,  $SD=31.27$ )보다 더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다( $t=2.92$ ,  $p<.01$ ). 이러한 결과를 그림으로 도시한 것이 그림 3이다.

#### 구성원 완전 유지 집단과 구성원 이탈 집단 간 비교

본 프로그램에서는 구성원이 완전 유지되도록 노력했으나 북한이탈주민들 5명이 아무런 말도 없이 프로그램에 불참하거나 다른 핑계를 대고 불참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것은 해당 집단 구성원들에게 적지 않은 심리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남한 주민들은 처음에는 너그럽게 넘어가려고 했으나 점차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이것이 프로그램 효과에서도 집단 완전 유지 상태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간에 차이를 발생시켰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사후-사전의 점수 차이를 기준으로 표 3과 같이 분석되었다. 이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남한 주민들의 구성원 이탈 집단에서 현저한 상대 신뢰감이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구성원 완전 유지 집단보다 구성원 이탈 집단의 경우가 상대 신뢰감이 낮았다( $t=3.11$ ,  $p<.01$ ).

### 논 의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현재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진정한 융화, 장차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강조하기만 하고 실제 이를 증명하지 못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 중에 실제 검증되지 못한 이장호 등(1997)의 연구 등을 참조하여 새로운 단기 집단 교

육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본 프로그램은 이장호 등(1997)의 연구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더 많은 비중을 둔 프로그램과는 달리 양측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즉, 이 프로그램은 남한 주민들에게는 최소한 북한이탈주민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들을 통해 북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남한 주민들과의 접촉의 질을 좀 더 평등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끌어올려주는 것이며, 남한 주민들의 경우처럼 남한의 문화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본 프로그램과 같이 대인관계와 문화 적응 능력의 함양을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대인관계 측면에서도 양측 주민들 간에 사회적 거리감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것은 단순한 접촉 이상의 의미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탈주민(.22P)보다 남한주민(.41P)이 더 많이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남한 주민들은 접촉 그 자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단순접촉효과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인관계 측면 중에서도 신뢰감 측면은 이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여기서는 출신 변인이 효과를 발휘했는데, 주로 남한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가지는 신뢰감이 증가하였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북한이탈주민의 이러한 결과는 이들에게 남한 주민과의 단순 접촉보다는 좀 더 신뢰로운 협동 활동이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한 주민이 신뢰감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변화가 긍정적으로 발생했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중도에 이탈한 집단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매우 낮았다는 점에서 남한 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신뢰감을 갖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남한 주민의 북한이탈주민 신뢰감이 총 6시간의 상호의존적 경험에 의해 변화의 여지는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절하지 못한 행태가 이러한 것을 가로막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신뢰감 측면은 본 프로그램 수준의 접촉과 협동 경험만으로는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향후 남한 주민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행동이 남한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줄 지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게 해야 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양계민과 정진경(2005)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을 계속 접촉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절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들에 대해 신뢰감을 적게 가지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유사성 지각 정도를 나타내는 허구적 유사성 측면에서는 본 프로그램 참가한 남한주민( $M=6.04$ ,  $SD=18.53$ )과 북한이탈주민( $M=2.05$ ,  $SD=31.27$ )은 참가하지 않은 남한주민( $M=.02$ ,  $SD=17.51$ )과 북한이탈주민( $M=1.01$ ,  $SD=.21.87$ )에 비해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는 이들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은 본 프로그램이 개인의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남한 주민

들이 더 많이 변화한 것은 남한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자신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일 것이라는 문화이질감에서 비롯된 것을 탈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남한 주민들이 보기에 북한이탈주민들도 ‘알고 보면 비슷하구나’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허구적 유사성에서는 남한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중도 이탈 여부와 상관없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볼 때, 신뢰도 제일 잘 변화하지 않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 다양한 방식의 연구와 프로그램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본 연구를 확장시킨다면 프로그램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이들의 적응 행태와 수준을 파악하는 추적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들 집단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망을 유지하는 지의 여부 등을 통해 프로그램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하나원의 교과 과정에 포함시킨다면 하나원 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주민 접촉 욕구를 해결하면서 남한 주민과 남한 문화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남한 주민들로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초기 입국 상태에서 접촉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애정과 접촉 욕구를 증가시켜 프로그램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1 대 1, 1 대 다수, 다수 대 다수의 프로그램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즉, 규모를 줄여서 멘토링 형태로 프로그램화할 수도 있고, 북한이탈주민 1인이 취업한 기업이나 조직에 팀빌딩(Team-building) 형태로 프로그램화할 수도 있으며, 남북경협 사업과 같은 곳에는 다수 대 다수 형태로 프로그램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통일이 지향하는 남북

한 주민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방향으로 프로그램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회적 캠페인 등을 포함시키고, 언론 매체에 드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다.

셋째, 현재 진행 중인 많은 NGO단체의 프로그램들과 연계시켜 본 프로그램의 확장을 꾀할 수 있다. 즉, 해당 단체의 고유한 지원 프로그램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 이전에 본 프로그램을 입문과정의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현재 각 단체의 프로그램이 가지지 못한 본 프로그램의 장점인 양측 주민 동등의 상호의존적 측면을 해당 프로그램 수정, 보완 시 포함시킬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가진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의 길이가 프로그램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좀 짧았다. 이것은 이들을 자주 모이게 하기가 쉽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지만, 이 점은 향후 좀 더 늘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로그램 진행 상 양측 주민들이 좀 더 육체적으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프로그램에 몰입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가 대인관계와 문화적응력 제고라는 점 때문에 지나치게 인지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을 지양하고 행동적인 것이 많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편의상 한 집단의 규모를 4명으로 했는데, 이 경우 한쪽 출신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결석하게 되면 집단의 힘이 한쪽 출신자들에게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총 6명 규모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넷째, 본 프로그램에서는 정착 기간이 4년

여까지 지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는 원래 본 프로그램의 취지가 이들이 단순히 정착 시간의 경과가 남한 주민들과의 진정한 접촉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정착 시간이 오래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남한 문화를 접촉하고 이해하며, 남한 주민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착 초입기 즉, 최대 3개월 이내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프로그램은 양측 모두 여자의 비율이 다소 높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여자들이 본 프로그램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했어야 하는데, 여러 번 만나야 하고,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가자들에게 약간의 사례를 했었는데, 이것이 여성들에게 더 유인가가 된 것으로 보이며, snowballing 방식으로 표집을 하다 보니 여성들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많이 표집되게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여성들이 전체 유입자수에서 2/3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많이 포함된 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성별에 따른 다소의 편중이 있었던 점이 프로그램 효과를 왜곡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본 프로그램은 성별을 가급적 균등하게 하려고 노력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이 향후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수도 있다. 즉, 남자들만의 집단, 여자들만의 집단, 남자

와 여자들의 혼성 집단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됨으로써 각 문화에서 하위문화로 존재하는 여성 문화, 남성 문화의 측면에 맞추어 문화적응 측면을 고찰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은 남한 연구자가 진행한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게라도 남한 주민 중심과 남한 문화 중심으로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 출신 진행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김해순(2002)은 형식적으로라도 동서독 출신 지도자가 동서독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맡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그래야 양쪽의 교육자들이 그들의 과거와 내용을 상징적으로나마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아울러 그 방법으로 동서독의 참석자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김해순의 생각이 우리의 경우에도 충분히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그라스 (2002). 독일통일에 대한 성찰. 중앙대학교 한독문화연구소 심포지움: 통일과 문화.

김문환 (2002). 통일과 문화 정책, 햇볕 정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한독문화연구소 심포지움: 통일과 문화.

김성윤, 유정갑, 강석운, 박선아 (200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김용민, 정상돈, 원준호 (2004). 갈등을 넘어 통일로-화해와 조화의 공동체를 위하여. 통

일부 통일교육원.

김창환, 양금희, 윤재홍 (2002).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태 분석. 통일부 용역과제.

김학성 (2000). 북한이탈주민(탈북이주자)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해순 (2002).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과 사회통합: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서울: 통일교육원.

대한민국정부 (2003). 200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독고순 (2001). 탈북주민의 가치정향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사회학, 35(1), 149-174.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199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성미영 (2002). 청소년의 북한이탈주민 수용정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태규 (2002). 동독주민의 “2등 국민” 의식의 원인에 관한 일고: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0, 9-32.

심진섭 (1995). 남북통일과 남,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미지-대학생, 실향민, 귀순자, 배우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계민, 정진경 (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특집호), 97-115.

윤인진 (1999). 소수자 연구 시각에서 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과정. 경남대 북한대학원 학술회의 발표논문.

- 이금순, 김규륜, 김영운, 안혜영, 윤여상 (2005).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통일연구원.
- 이금순, 김규륜, 김영운, 안혜영, 윤여상 (2005).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8-07.
- 이금순, 최의철, 임순희, 이우영, 김수암, 윤여상, 안혜영, 김병로, 오승렬 (200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실태. 통일연구원.
- 이우영 (2001). 북한문화의 수용실태 조사. 통일연구원.
- 이은정 (2001). 애착에 따른 이성 간 지지 행동의 차이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장호, 김용범, 김경웅 (1997).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적 갈등 해소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이정우, 김형수 (1996).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종환, 금명자, 채정민, 이영이 (2005). 오늘의 마음으로 읽는 내일의 통일: 지지, 반대, 무관심의 스펙트럼.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총서 11.
- 이혜영 (2000).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 서울: 푸른숲.
- 전우영, 조은경 (2000).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67-184.
- 정진경 (2000). 남북한간 문화이해지. 조한혜정, 이우영 역, 탈분단시대를 열며: 남과 북, 문화공존을 위한 모색, 367-422.
- 정진경 (2002). 북한사람들의 성역할 특성과 가치관: 탈북자 자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2), 163-177.
- 조궁호 (2005). 문화성향에 따른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45-63.
- 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진섭 (2005).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 3년 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467-484.
- 조정아, 임순희, 정진경 (2006).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 방안. 한국여성개발원/통일연구원.
- 채정민 (200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행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콜베 (2002). 독일통일과 작가의 역할. 중앙대학교 한독문화연구소 심포지움: 통일과 문화.
- Arends-Toth, J. & van de Vijver, F. J. R. (2002). Multiculturalism and acculturation: Views of Dutch and Turkish-Dutch.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 Aronson, E., & Gonzalez, A. (1988). Desegregation jigsaw, and the Mexican-American experience. In P. A. Katz & D. Taylor (Eds.), *Towards the elimination of racism: profiles in controversy*. New York: Plenum Press.
- Bourhis, R. Y., Moise, L. C., Perreault, S. & Senecal, S. (1997). Towards an interactive acculturation model: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2, 369-386.
- Collet, P. (1993). *Foreign bodies*. A. P. Watt. 이윤식 역, 습관을 알면 문화가 보인다, 청림출판.
- Mattausch, J. (1996), 'A penury of bookes: The printing press and social change, in an

Indian setting', *South Asia*, 19(2), 59-83.  
Montreuil, A. & Bourhis R. Y. (2001). Majority  
acculturation orientations toward valued and  
devalued immigra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6), 698-719.

1 차 원고 접수일 : 2007. 1. 16

최종 원고 접수일 : 2007. 5. 17

## **A program for enhancing the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 defectors' interpersonal abilities and accultural abilities**

**Seong-Yeul Han**

Korea University

**Jong-Han Yhi**

Daegu University

**Myong-Ja Keum**

**Jung-Min Chae**

Korea University

**Yeong-Yi Le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velop a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the South Koreans and the North Korean defectors to identify mutual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personal traits, and to acquire adaptation capacity for the other's cultur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then we validated the effect of this group program. This program was based on the existing program even if that was not validated through research work. Actually this program was for encouraging the South Koreans and the North Korean defectors to acquire interpersonal ability through mutually dependent and cooperative work based on the equal status naturally and to adjust themselves to corresponding culture. Each session continued for 1.5 hour per week. And the sessions were done for 4 weeks. This research was analysed,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control group's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reatment group revealed significantly positive outcomes than control group. But, five participants among the North Korean defectors were dropped out in the course. So North Korean defectors' credibility got lowered.

*Key words : culture, psychological adaptation, North Korean Defector, group counseling, reunification*